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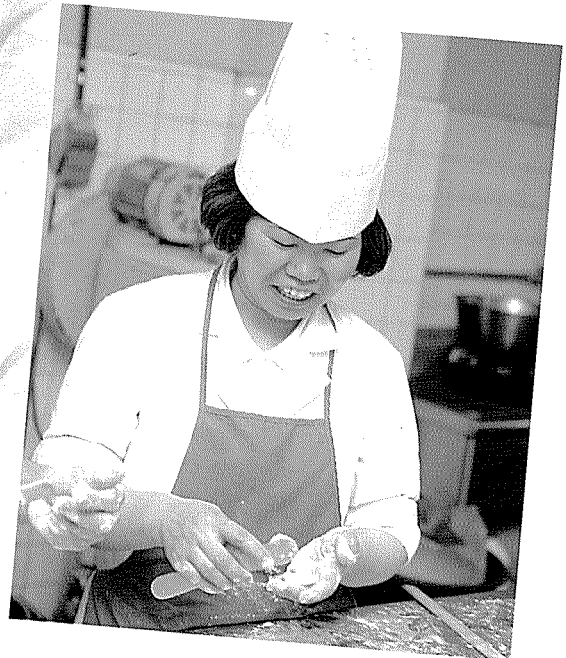
이젠 부자라고 불러주세요

압구정동 봉베이커리 박미녀

늘상 잠이 부족한 박미녀 씨는
출근길 전동차에 오르자마자
옹색한 잠을 청한다.

달디 단 선잠 속에서 그녀가 꿈꾸는
“장미빛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서른 다섯의 평범한 주부에서
늦깎이 제과기술인으로 거듭나기까지
박미녀 씨가 땀과 눈물로 가꿔온
세월의 뒤편길을 더듬어 보자.



▲ 일하는 즐거움. 94년 그녀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매입,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제과점의 인력 이동이 심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돈 몇푼에 마음이 끌려 정든 일터를 떠나는가 하면 보다 나은 근무여건을 찾아 철새처럼 떠도는 기술인들의 이기심은 가뜩이나 시원찮은 경기로 고민해온 자영업자들의 욕에 종종 찬물을 끼얹어 왔다.

압구정동 금강쇼핑센터에 위치한 봉베이커리의 박미녀 씨. 올해 마흔세 살인 그녀는 보기 드물게 한 직장에서 8년여를 장기 근속해온 기술인이다. 취재차 방문한 기자에게 스스로

없이 자신을 ‘나이먹은 이쭈머’라고 소개하는 그녀에게는 지난한 세월이 남겨놓은 연륜의 흔적과 여유로움이 진득이 배어 있었다.

내집마련 꿈 이루기 위해 제과점 취업

강원도 철원이 고향인 그녀는 나이 서른 다섯이 될 때까지 그저 집안 살림밖에 모르는 평범한 전업주부였다. 철원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상경해 친언니가 경영하던 양장점의 ‘시다’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그녀가 남편 양유환(48) 씨를 만난 것

은 스물 다섯 살이 되던 해의 일. 단골로 드나들던 동네 아주머니가 내심 짹짹하고 인사성 밝은 그녀를 눈여겨 보았다가 맞선을 주선했던 것이다.

내리 딸 셋을 낳은 뒤 얻는 계집아이라 질망이 여간 아니었지만 막내딸의 방실거리는 모습도 하도 예뻐 이름까지 '미녀(美女)'로 지어주었던 부모님의 은덕이었을까. 100만원짜리 단칸방으로 시작한 살림이었지만, 남편의 자상함이 워낙 자별해 결혼 생활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다.

"평소 돈 한푼 허투로 쓰지않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커 가다보니 혼자 벌이로는 내집 마련조차 쉽지가 않더라구요. 살림하는 것이 전부인줄 알았던 저는 그럴수록 '덜쓰는게 모으는 것'이란 생각으로 가게부만 붙들고 있었지요"

그런 박미녀 씨가 제과점에 취업을 하게 된 것은 90년 초 딸 명옥이의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아이와 같은 병실을 쓰던 어느 아주머니가 이런 저런 말 끝에 제과점을 경영하는 친척 하나가 일 할 사람을 구하더라란 얘기를 전해 주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의 교육비에 그즈음 15평 남짓한 집을 장만하느라 얻어 쓴 용자금의 부담이 순간순간 눈앞을 스쳐갔다. 그 흔한 빵 이름 하나 제대로 주워 삼키지 못하면서 경험도 없는 취업전선에 덜컥 뛰어들었다는 것은 순전히 자식들에겐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 때문이었다.

공장장이 다섯 번 바뀐 세월, 눈물도 많아

학원에서 따로 제과기술을 배운 적도 없고 나이까지 적지 않다 보니 초기에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공장안의 잔심부름이 고작이었다. 어깨너머로 좀 기술을 익힌 뒤에도 빵을 까맣게 태우거나 제품 크기가 고르지 않을 때는 어김없이 공장장의 불같은 호통을 들어야 했다.

그때마다 박미녀 씨는 입술을 앙다문채 돌아서서 눈물을 떨궜다. 야속함보다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부끄럼이 앞섰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피로, 밤늦게 돌아오는 엄마에 대한 아이들의 원망. 그래도 그녀를 견디게 해 준 것은 주인 아주머니를 비롯한 제과점 식구들의 한 마디 위로였다.

"핏줄을 나눈 형제끼리도 같이 살다보면 마음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야속하고 화나는 일이 없겠어요.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전부 쏟아내 버려요. 그리곤 끝이죠.

마음에 꿈하니 담아두고서야 어떻게 직장생활을 오래 견딜 수 있겠어요."

8년이란 세월은 생각처럼 녹록하지가 않았다. 그동안 봉배이커리를 거쳐간 공장장만도 무려 다섯. 정 많은 박미녀 씨는

듬뿍 정이 든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둘 때마다 '오래도록 같이 일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제과점 일이란게 사실 보통 힘든 일인가요? 저는 제가 여자란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자라는 게 무슨 큰 벼슬은 아니잖아요. 월급 받는 만큼 몸사리지 않고 일하지요."



▲ 봉배이커리 공장직원들과 함께 한 박미녀 씨. 그녀는 이들을 '식구들'이라고 부른다.

3년전 4층 다세대주택 매입, 내집마련의 꿈 이뤄


봉배이커리에 근무하면서 박미녀 씨는 '사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3년전 꿈에 그리던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매입할 때도 넉넉히 몫돈을 보태준 건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사장 김종익 씨였다. 신통하게도 입사와 함께 집안의 대소사가 수월하게 풀려 이래저래 그녀가 봉배이커리에 느끼는 고마움은 대단하다.

"남편은 이제 먹고 살 만큼 되었으니 직장일을 그만두라고 하지만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몸 아프고 속 상하면 '이제 그만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마음이 바뀌지요. 이제 빵 만드는 재미를 좀 알 것 같아요."

새벽같이 일어나 중3, 고2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겨 학교로 보내고 나면 비로소 박미녀 씨가 출근할 차례. 늘상 잠이 부족한 그녀는 차에 오르기가 무섭게 부족한 잠을 청한다. 한달에 두 번 있는 휴일에도 어머니로, 주부로 집에서 밀린 잠이나 보충할 형편이 못되는 그녀에겐 그나마 출근시간에 잠시 눈 붙이는데 유일한 '보약'이다.

그래도 늦게 퇴근하는 아내를 위해 집안 청소까지 거들어 주고 종일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박미녀 씨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남편 덕분에 하루의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진다.

인터뷰 도중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는 그녀의 눈엔 간간이 물기가 어렸다.

그러나 그것은 회한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한 부자의 여유로운 웃음이었다. 

〈글/이종원〉